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6호 [루계 제2145호]

주제 100  
(2011). 11

12  
토요일

음력 10. 17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를 시찰하셨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군부대에는 자기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심에 기초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시찰의 길에서 만나시었던 지휘관 박성호동무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어주시며 웃단위 일군으로 성장한 그의 사업성과를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사대상물들과 전투기술기재, 비행사들의 침실, 학습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부대의

경계근무수행정형과 훈련, 전투동원준비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부대에서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면서 적들의 변화 된 전쟁방식과 전투행동조법, 무장장비

의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식의 전법과 전술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사색하

고 실천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비행사들이 싸움준비이자 훈련이고 훈련이자 싸움준비라는것을 자각하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지휘소에 오

르시여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은 출격명령이

내리자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촌살

같이 하늘높이 날아올라 평시의 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자기들의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우리

공군의 위력을 과감하게 펼친 용맹스러

운 훈련을 보시고 모든 비행사들이 하늘

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된데 대하

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참고참아온 분노, 다지고다져온 백승

의 힘을 멀치며 복수의 불을 토하게 될

결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미덥고 자

랑스러운 비행사들이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영광을 헐

벽으로 지켜가고 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

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날 군

부대의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을 찍으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전방격전장을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찾고찾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

에 항공대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이루

하시여 우리조국을 원쑤들의 침공으

로부터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

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

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거룩

한 자취가 어리여있는 혁명사적지를 원

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자

기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

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우리혁명파 사회주의조국을

무장으로 튼튼히 보위하는 길에서 자랑

스러운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

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전방격전장을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찾고찾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

에 항공대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이루

하시여 우리조국을 원쑤들의 침공으

로부터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

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

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거룩

한 자취가 어리여있는 혁명사적지를 원

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자

기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

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우리혁명파 사회주의조국을

무장으로 튼튼히 보위하는 길에서 자랑

스러운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

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본사기자

## 특색있게 꾸려진 해내외동포봉사기지

### 고려동포회관 개관식 진행



풍치수려한 평양의 만경대지구에 해내외동포들을 위한 고려동포회관이 새로 일떠섰다.

고려동포회관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회담도 하고 통일 행사와 모임도 하면서 협력의 정과 뜻을 함께 나누는 현대적인 통일활동봉사기지이다.

3 394m<sup>2</sup>의 연진평에 여러 개의 면담실, 200여석의 대목적행사장, 식당, 청량음료매대, 기념품매대들이 그흔히 갖추어진 고려동포회관은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다.

고려동포회관에는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 할 뜨거운 일념을 안고 회관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온 최은복 재중조선

해주고있다. 고려동포회관이 일떠섰다는 소식을 듣고 회관을 찾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고려동포회관』이라는 이름부터 자기들의 마음에 꾹 듣다가, 훌륭히 꾸려진 회관을 돌아볼수록 하나된 강勁한 힘을 느낄수 있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개관식에는 조선해외동포원회원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윤영상 강원도지사, 윤영상 강원도지사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개관식에서는 축하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평양의 만경대지구에 고려동포회관이 훌륭히 일떠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발언자들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모여 앉아 통일의 방도도 허심하게 나누며 협력의 정을 두려이 해나가는 고려동포회관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음을 전적으로 위대한 주석님의 유훈을 받아들어 민족대단합의 정체, 통일에 국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領導와 세심한 배려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려동포회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잘해나감으로써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해내외동포들의 기대에 보답해 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고려동포회관을 돌아보았다.

개관식에는 조선해외동포원회원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윤영상 강원도지사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개관식에서는 축하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

##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총군중 5 000여명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

를 위한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통제로 넘겨주는 협정체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통제로 넘겨주는 협정체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협정체결은 남조선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만드는것이라고 단죄하면서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그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저지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저지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5일 서울 종로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었다.

6일에도 이곳에서 초불집회가 계속되었다.

남조선 각지에서 모인 수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어

떤 일이 있더라도 협정체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이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저지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중국의 마오쩌둥주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시는 사진입니다.

보면 불수록 조중친선의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대성인의 거룩한 모습이 어려운다.

두 나라의 협력과 국제정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고간 상봉석상에서 마오쩌둥주석은 세계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동지와 가장 친근한 전우, 형제관계를 맺고 혁명한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세계혁명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가 주석동지의 어깨 위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부디 건강하시라고 축원의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타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으로 20세기 국제정치사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54차에 685일 간에 걸쳐 연 87개 나라를 방문하셨다. 그로 정의 연장거리는 130만 6 150여 리에 달한다. 주석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박시기 까지 136개 나라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당시 400여 명을 비롯하여 연 7만여 명의 외국의 벗들을 만나 사업하였다. 그이께서는 지니신 절대적 권위와 높으신 명망은 7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으신 180여 개의 최고훈장과 메달, 30여 개 도시의 명예시민 칭호 그리고 20여 개의 외국의 이름있는 대학들의 명예교수, 명예박사 칭호들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이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은 169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개별적인 사람들 그리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16만 5 920여 점의 치성어린 선물마다에 어려웠다. 중국과 몽골에는 주석의 동상이 전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 수여되고 있으며 세계 100여 개 나라 480여 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그이의 존함이 모셔져 있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벗들이 선물들,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고 있다.

출중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주석께서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본사기자

주체68(1979)년 1월 1일은 려연구선생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와 그의 동생들을 몸소 만나시였다.

그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왜 이제야 왔는가고, 너희들이 보고싶었다고 하시며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편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나무라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이들이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이라고 하시였다. 이후고 그이께서는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셨고 려운형선생에 대해서 려연구, 려원구 두 자매를 처음 만나시던 일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한 때 조선인민당 당수였던 려운형선생은 해방후 여러 차례 북행길을 단행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었고 새 조선건설과 조국통일과 관련한 말씀을 접하면서 그이의 출중한 위인적 풍모에 매혹되었다.

조국의 자주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려운형선생의 애국지심과 활동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긴 외세와 남조선의 반역통치들의 박해와 탄압은 그가 평양을 다녀온 후로 더

##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 몽양을 대신 하시여

는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실게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려연구선생은 1946년 7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자매는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국진한 은정과 보살핌 속에 근심걱정을 모르고 배우며 성장했다.

어느 날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류학의 길을 떠나는 그를 만나시여 본인의 희망에 대해 알아보시고 유능한 외교일군이 되라고 그의 장래도 축복하셨다.

수령님의 기대와 보살핌 속에 려연구선생은 류학공부를 했고 그 후 대학교원, 연구사

활의 구석구석 따뜻이 돌보아주셨다.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국진한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 려연구선생의 성장의 날과 날이 훌륭하고 그는 외국류학도 하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류학의 길을 떠나는 그를 만나시여 본인의 희망에 대해 알아보시고 유능한 외교일군이 되라고 그의 장래도 축복하셨다.

수령님의 기대와 보살핌 속에 려연구선생은 류학공부를 했고 그 후 대학교원, 연구사

음에 의해 종회 주석단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과 남조선에서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너성의 역할》에 관한 두차례의 토론회에 공화국 너성 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몽양 려운형선생이 남진 자녀들에 대해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다시금 려연구선생과 그의 동생들을 만나시고 나는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니 나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사려 깊은 육친

## 도서 『김정일백과전서』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도서 『김정일백과전서』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출판하였다.

도서발행식이 2일 인디아네델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장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등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도서, 사진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발행식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

구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주체사상봉사자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재 우리 나라 특

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

사장 비슈와나스는 도서

『김정일백과전서』의 기본

내용과 그 발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

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회색의

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쿠니트

##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 땅에 펼쳐지는 강성국가의 미래상은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맹세와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현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현신은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엄숙한 맹세의 발현이며 드림없는 실천이다.

일찌기 가슴부루는 희망과 포부를 안으시고 통남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 나아가리라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담아 삼장으로 터놓으신 것이 『조선아 너를 빛내리』이다.

해솟는 통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인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일찌기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물이 젓게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 굽함없이 싸워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하고 애말 지원의 숭고한 뜻이 어린 김형직선생님의 맹세,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수령님께서 다지신 포평나루의 맹세를 계승한 통남산의 굳은 맹세였다.

위인의 맹세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 진가가 겸증되는 법이다.

그때로부터 어언 반세기를 헤아리는 수십여 성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지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애국애족의 기나긴 장정을 이어오셨다.

통남산의 맹세를 심장에 새기시고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조국방선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킨 장군님의 애국현신의 자족자족속에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광복국의 존엄이 온 누리에 높이 떠올랐다.

맹세는 완강한 인내와 비상한 열정, 뚜렷한 목표와 빛나는 실천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에 닥쳐왔던 최악의 시련도 통남산의 맹세로 가슴

## 룡남산의 맹세

우시며 헤쳐오시였다. 그 맹세가 있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공화국은 락원의 길, 강성국가 건설의 지름길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었다.

대덕산초소, 351고지, 1211고지, 오성산, 초도…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 전선길에서 지는 달, 솟는 해를 맞으시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신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국은 어泯어나간 자연흐름식 물길,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드넓은 파수의 바다가 펼쳐진 평양의 삼석지구의 희한 벼모…

조선은 세계에, 철갑상어는 바다로 나가는 다개단사변과 경이적인 비약은 조선을 빛내이고 온 세상에 멀치리라는 장군님의 통남산의 맹세가 안아온 거창한 현실인 것이다.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갑상어의 기치상봉들이 마련되고 1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높은 뜻이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강대하고 자립으로 흥하는 조국의 위대한 현실과 민족의 통일열망으로 들끓는 6.15시대는 통남산의 맹세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지신 통남산의 맹세, 그날의 맹세가 있어 이 땅에 겨레의 힘원, 인민의 힘상이 실현되는 통일강성국가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석현

장군님께서는 금수강산삼봉리에 양춘이 찾아온 철갑만세를 불러달라던 김형직선생님의 절절한 부탁과 생전에 조국통일 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온갖 토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의 뜻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이 마련되고 1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상봉들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높은 뜻이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강대하고 자립으로 흥하는 조국의 위대한 현실과 민족의 통일열망으로 들끓는 6.15시대는 통남산의 맹세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지신 통남산의 맹세, 그날의 맹세가 있어 이 땅에 겨레의 힘원, 인민의 힘상이 실현되는 통일강성국가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석현



통남산의 맹세를 받들어 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로 활동했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의장으로 사업하면서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조국방선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킨 장군님께서는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지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애국애족의 기나긴 장정을 이어오셨다.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숭고한 사랑과 은정에 목에 려연구선생은 수령님께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재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정진어린 이 말에 푸질많은 길을 걸어온 려씨가문을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생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 어려웠다.

민족의 어버이를 따르는 길에 통일국의 삶이 있고 만복이 있다는 것은 지나온 나날들에 우리 겨레가 체험한 인생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주체82(1993)년 3월 어느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서는 굳게 다진 그 맹세를 내시였다.

바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만나주시는 수령님께서는 굳게 다진 그 맹세를 내시였다.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숭고한 사랑과 은정에 목에 려연구선생은 수령님께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재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정진어린 이 말에 푸질많은 길을 걸어온 려씨가문을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생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 어려웠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파업은 민족의 분별을 통해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이루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굳은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려연구선생은 수령님께서는 그들에 조국통일을

## 통일의 길에 새겨진 승고한 자욱

#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시려고

1990년대 중반기의 변화된 환경은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민족적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해나갈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저히 관철하라』를 발표하시어 새로운 역사적 시대에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로선을 밝혀주시었다.

애국에 축의 철리가 담겨진 로작의 글출마다에는 온 겨레의 통일열의를 불러일으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작에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튼튼한 티로를 밟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족원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이 나рав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풀어쥐고나가

하늘나라 견우직녀 기쁨 속에 만난다리 우리들도 이 땅우에 어서 빨리 세웁시다 통일오작교 통일오작교 어기경차 힘을 합쳐 어서 빨리 세웁시다

까막까치가 놓아준 오작교에서 서로 만나는 전설속의 견우와 직녀처럼 온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호에서 상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민족의 네임이 담긴 노래 『통일오작교』.

주체87(1998)년에 창작된 가요 『통일오작교』(전진작사, 리종우 작곡)는 우리 겨레가 사랑하는 통일노래들 중의 하나이다.

노래가 창작되던 시기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조국통일운동이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대결책 동을 짓부시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날로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던 때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인들은 쌍당조국의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미자주화와 반파시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펼쳐나섰고 이는



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항해 전민족적 범위에서 날로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다.

노래의 2절에는 조국통일 5개방침을 높이 발하고 통일의 장애물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이 『통일오작교』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그러나 당시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의 고통과 분별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 대신 조국통일을 일일 천으로 갈망하는 겨레의 지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터넷에는 암산 1등 어린이를 배출한 암산학원원장도 있고 큰 사업가도 있으며 유기농 농업을 성공시킨 사람, 주변에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뛰어난 문필가도 있다.

왜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어겼으며 고령의 나이가 들 때까지 그 『국가보안법』에 굽하지 않고 싸워온 것일까?

검찰과 보수언론에서 요즘 북한양자리즌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우수성을 날에 날마다 터뜨리고 있다.

최근 병무청직원과 『대한항공』 려객기 조종사, 공군장교, 변호사, 교수 등 사회각계인 70여명이 인터네트 상에서 종북활동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돼 룬란이 일고 있다.

단일사건으로 70여명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다니 많길 많은가 보다.

법적조사와 받을 정도의 적극적 찬양을 자체한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병무청 직원, 군인, 장교 등 군기관 간부들이 심

## 찬양은 실로 가슴에 샘솟는 인간본성의 발로

심치 않게 친북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변호사, 교수, 민학기 조종사까지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어렵지 쉽게 분위기에 훈슬려 북을 찬양하는 일에 동조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사실 이들 사이드들을 방문해 보면 사이드마다 수백, 수천명씩 모여 구체적으로 북의 군사력과 과학기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항일무장투쟁역사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국가임을 자임하며 세계 강국으로 마구 자원탁탈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회담에 불러다놓고 미국이 폐권을 부리면 세계면전에서 핵시력 팽팽 터뜨리고 신형 미싸일 승승 쏘내는 북의 당당한 대미외교에 대해 구체

적으로 거론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가 멀다하니 『조, 중, 동』과 공중파방송들에서 북이 다 당해가고 있다는 보도가 떤이어 나오고 있음에도 판단력이 이미 견증된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직업군에서 이런 친북찬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사람은 매를 때려 이리저리 움직이게 할수 있는 마소가 아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말하라고 탄압을 가한다거나 이를 대로 조절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더 저항하는 자주존재이다.

그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마구 자행할 때 일시적으로 움츠렸던 사람들도 결국엔 더욱 큰 분노와 강한 의지로 펼쳐나선 경우가 많았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서 재개)

남조선의 인천지역로동,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안법 폐지 공안탄압분쇄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인천대책준비위원회』가 11월 3일 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재산사건』 관련 공안탄압을 멈추고 파이낸서

인천지역단체

## 『간첩단사건』 관련 공안탄압중단 요구

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위원회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환장이 랑발

그들은 『왕재산사건은 공안정국조성을 위한 수사』라고 하면서 『제네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앙당과 시민단체의 분열을 꾀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탄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통일금강신

해마다 10월말, 11월초가 되면 우리 나라의 산야 그 어디에나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단풍의 명산은 가히 금강산이라 할수 있다.

단풍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금강산을 그래서 풍악산이라 했던가.

얼마전에 기본 금강산의 단풍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하늘을 찌를듯이 늘어선 봉우리들과 각이한 모양의 기암들, 거대한 총암절벽들과 서로 다른 깊은 계곡들, 수많은 담소와 물들, 웅장하고 수려하며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에 어울려 금빛, 불빛으로 명산을 뒤덮는 단풍.

그마다 굽이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단장된 금강산은 불수록 활활경이었다.

깎아지른듯 한 절벽에 뿐리박은 나무가지에도 단풍은 빨갛게, 노랗게 타들어갔다.

단풍가을의 정취는 사람을 사색하게 만든다. 산야를 물들이는 가을단풍을 바라보느라면 제법 나름의 철학이 있듯도 하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벽계수 허리내리는 속에 진홍빛단풍으로 무르익은 금강산, 이 명산의 단풍은 우리의 눈앞에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구하는 겨레의 피는 단풍이다.

명산을 통채로 끓이는 듯한 금강산의 단풍을 접하느라 그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 겨레의 한 반통일대에 펼쳐진 고개였다.

동산로를 따라 펼쳐진 고개의 한가운데 풍물은 단풍, 바위는 단풍, 물들여지는 단풍이 그날에 펼쳐진 고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에 웃

고 떠들던 겨레의 모습을 금강산에서 찾을 수 없다. 구룡연에 손 닦고 익살스레 물뿌리던 모습들도 착각인듯 사라지고...

산은 예대로고 단풍도 절경인데 명산을 친감했던 북파 남의 화합과 협력의 모습은 볼수 없다.

수년 전 남조선에서 보수 세력의 집권으로 북남관계는 국과국을 맞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면서 10년 나마 진행되어온 금강산관광마저 끝내 파탄되고 말았다. 6.15를 부정하며 출범한 남조선보수당국은 북파 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재왕과 협력사업들을 모두 차단하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관계로 만들어버렸다. 지난해에는 모략적인 『친안』호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사건을 기회로 북남관계를 충돌이 오가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몰아갔다.

실로 지난 수년간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의 화해와 신뢰를 잊고 대화와 협력을 잊었으며 평화를 잊었다. 지난해 같은 대로 북과 남의 통일대회를 개최해온 6.15의 상징으로 불리운 『친안』호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사건을 기회로 북남관계를 충돌이 오가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몰아갔다.

이 민족의 명산에서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백두에서 한나로 잇닿은 우리 조국은 하나의 강도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가는 땅과 희열을 느꼈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벽계수 허리내리는 속에 진홍빛단풍으로 무르익은 금강산, 이 명산의 단풍은 우리의 눈앞에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구하는 겨레의 피는 단풍이다.

명산을 통채로 끓이는 듯한 금강산의 단풍을 접하느라 그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 겨레의 한 반통일대에 펼쳐진 고개였다.

동산로를 따라 펼쳐진 고개의 한가운데 풍물은 단풍, 바위는 단풍, 물들여지는 단풍이 그날에 펼쳐진 고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에 웃

## 련북통일기운은 대세의 흐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폐당이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련북통일기운을 막아보려고 친북싸이트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제3회 제법 대회를 개최해온 6.15의 휘황한 알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보도는 최근 피폐당은 제법 대회를 바탕으로 향해온 6.15의 휘황한 알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을 높이 칭송하며 김일성주석님과 꽃같은 제법 대회를 개최해온 6.15의 휘황한 알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보도는 최근 피폐당은 제법 대회를 바탕으로 향해온 6.15의 휘황한 알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을 높이 칭송하며 김일성주석님과 꽃같은 제법 대회를 개최해온 6.15의 휘황한 알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노래의 3절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친북방공국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노래인 『친북방공국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노래이다.

노래에 담겨진 겨레의 넘원대로 이 땅우에 통일강성국가가 일떠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노래에 담겨진 겨레의 넘원대로 이 땅우에 통일강성국가가 일떠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찬란을 금치 못하면서 절세의 위인들을 흡모하고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펼쳐온다.

여기에는 공무원, 군인, 지식인, 변호사, 려객기조종사, 대기otyp으로부터 나온다. 피폐당은 최근에는 전세계에 퍼져나온 청탁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무어진 활동수단이라는 것을 내몰아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친북싸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하면서 이러한 피폐당은 그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 겨레의 한 반통일대에 펼쳐진 고개였다.

이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따르고 자주와 민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에서 인권이 얼마나 막대되어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열의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피폐당이 남조선과 해외에서 날로 늘어나는 친북싸이트들은 차단해보려고 아무리 끌어당겨도 대세의 흐름을 끌어당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피폐당이 친북싸이트를 통한 반통일대에 펼쳐진 고개는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다.

지금 남조선에 펼쳐진 고개는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다.

본사기자는 남조선에서 날로 늘어나는 친북싸이트를 펼쳐진 고개는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다.

작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인터넷을 통해 진보적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수당국은 『인터넷은 독』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반역정책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하나 보면 해보려고 있다.

인터넷이 술한 수자를 려거하며 인터넷과 관련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 『실적』을 광고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그 수자는 오히려 인민을 등진 독재자들이 더러운 정치적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파쇼적 폭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전세계에 퍼져나온 친북싸이트들은 그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다.

공안당국이 술한 수자를 려거며 인터넷과 관련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 『실적』을 광고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그 수자는 오히려 인민을 등진 독재자들이 더러운 정치적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파쇼적 폭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혼란 망상을 쌓아서 고개를 펼쳐진 고개는 그날의 풍물은 단풍, 끓어번지는 단풍이다.

자본 정

## 인터넷에는 족쇄를 채울 수 없다

을 벌려온 끝에 고령의 그를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강제 험행하는 족쇄를 끼웠다.

그가 한 일이라도 인터넷에 형성색색의 뮤언비어와 거짓말투성이로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

# 《맞춤식 억제전략》은 새로운 전쟁도발전략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지난 8~9일 이를 사이에 걸쳐 미명을 제거하는 전쟁도발전략이다.

한마디로 그 무슨 『징후』가 포착되면 공화국의 주요 군사기지들과 장소들을 사전에 『죽집계식』으로 정밀타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마련해보자는 이 전략의 침략성과 위험성이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시기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기도를 꾀하면서도 여론이 두려워 그것을 감히 군사전략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이로부터 남조선당국은 명색상으로 『방어전략』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세 버릇 개 운준하고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현 보수당국은 지난해 『천안』호사건을 기회로 북침선제공격기도를 꼽아서 드러내놓았다.

당시 특대형 모략사건을 조작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과거에는 교전규칙에 너무 깊이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느니 뛰니 하고 떠들어며 『도발대응』의 미명 하에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상대방으로부터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기지들을 먼저 타격한다는 선제타격전략이다.

무기와 재래식 무력, 미사일 요격체 등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전쟁도발전략이다.

한마디로 그 무슨 『징후』가 포착되면 공화국의 주요 군사기지들과 장소들을 사전에 『죽집계식』으로 정밀타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마련해보자는 이 전략의 침략성과 위험성이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시기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기도를 꾀하면서도 여론이 두려워 그것을 감히 군사전략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이로부터 남조선당국은 명색상으로 『방어전략』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세 버릇 개 운준하고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현 보수당국은 지난해 『천안』호사건을 기회로 북침선제공격기도를 꼽아서 드러내놓았다.

당시 특대형 모략사건을 조작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과거에는 교전규칙에 너무 깊이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느니 뛰니 하고 떠들어며 『도발대응』의 미명 하에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상대방으로부터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기지들을 먼저 타격한다는 선제타격전략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적극적 억제전략』이 작전계획화될 경우 『북의 핵, 미사일 기지, 전쟁재구부시설 등이 주요타격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떠들어댄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부터 남조선호전세력은 『북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첨보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같은 정보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고아면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급유기 등 최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선조치, 후보고』라는 위험한 전략을 기획하였다.

이것은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는 『억제』의 간판을 단 북침선제공격전략이며 합선침몰사건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로그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저들이 독자적으로 내세운 『적극적 억제전략』도 미국과 손잡지 않고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타산하고 상전에 빌불어 이미 여러 계기들에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수단들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시기가 바야흐로 다가오는데 위구를 확보해온다는 전제타격전략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어떻 게 해서나 사전에 상전과 약합하여 새로운 공격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진애를 썼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전쟁 시기 대량살상무기제거를 구실로 『맞춤식 억제전략』을 실전에 도입하여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어달리면서 학전제거를 기정사실화한 미국에 있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동으로 하자는 주구의 요구는 그대로 가물끌에 단비와 같은 것 이었다. 말 그대로 『맞춤식 억제전략』은 상전과 주구주의의 동반된 이해관계, 북침야망의 공통성에 따라 체결된 합작품이다.

문제는 『맞춤식 억제전략』이란 것이 제43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선반도에서의 학전제거를 손쉽게 불려온다는 것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이번에 『맞춤식 억제전략』뿐 아니라 무력충돌에 대비한 『공동국지전대비계획』에 대해서도 본의하였다.

더우기 이 작전에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과 주일 미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 미군 병력과 장비들을 전부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무력충돌과 『징후』 포착을 구실로 공화국을 무차별적으로 학전제거하고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제2의 조선전쟁을 속전속결해보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될 것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오늘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결탁으로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학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한점의 불씨가 그대로 불길이 되어 이 땅우에 학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고 6자회담 대표를 비롯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결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내외호전세력들이 반공화국핵전쟁 습관에 팽창할 수록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그에 대처한 전쟁 억제력을 더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

호전세력들은 무모한 전쟁연습

소동으로 치르게 될 엄청난 대가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김철호

그때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말을 해도 제 민족에게 리익이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외세의 리익을 추구하였으니 그에게 민족적 자존심이 고물만큼 이라도 있는지, 초보적인 인간의 체포마저 갖추고 있는지 물어 않을 수 없다.

민족사의 친유민 현 당국자의 비열한 추태를 놓고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 (정부)』는 연설문 안 하나 작성할 수 없는가. 미상공회의소와 미의회에서 한 연설내용들이 사실상 모두 상전이 써준 각본이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뿐 아니라 집권세력은 연설문을 써주는 대가로 상전에 4만 6,000US\$라는 서민들의 혈세까지 삼겨바치고 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현 집권자가 제손으로 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 것도 제 사람이 아닌 남의 나라 사람에게 돈까지 썹겨버리면서 써달라고 한 글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뮤즈를 훑어았으나 곤장을 높여 말을 한마디나 했겠는가.

현실적으로 현 당국자는 미국행 각기 간의 연설들에서 상전의 요구대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정당성』 만 장황하게 설명하였는가 하면 『혈맹』이니, 남조선미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그니 하는 따위의 판에 박은 친미사대 망발만 일삼았다. 그야말로 위성론의 나팔수 역할만 한 것이다.

본사기자 김승철

## 미군범죄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

남조선의 경기북부 진보련대가 미군범죄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학전제거를 규탄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비난하고 짐승도 날을 끝힐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벤튼스럽게 놀아대는 미군범죄자의 항소술음을 강력히 단죄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동두천에서 미군범죄

본사기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대죄악은 천주만대에 두고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런데 갈피속에는 우리 민족에게 치욕을 강요한 『을사5조약』 날조 사건도 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침략의 원흉 이도 히로부미(이동박문)는 서울의 곳곳에 중무장한 침략무력을 펼쳐들여 왕궁을 점거하고 삼엄한 강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우리 민족의 의자와 전면변치되는 『을사5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여기에서 일제는 조조통정부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말살하는 『통감정치』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을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 국체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불법무법의 날조문서이다.

서울시 장재보총선거에서 서한 보수집권세력이 『쇄신론』을 떠들며 그 무난변화라도 보일듯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변화의 미명 하에 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온 『쇄신론』은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3파 사이의 치열한 비난전이 벌여져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의원 25명은 10월 선거에서의 폐쇄와 관련하여 현 당국자의 대국민 담화발표와 『747공약』 폐기, 인사쇄신,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측근인 물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을 바로 하지 못하여 선거

박계가 이번 선거의 책임을 헌지로 넘기면서 빼앗긴 주도권쟁탈전에 나선 것이다.

지금 친리계는 『지도부의 버티기는 당시 확실히 당하는 길』이고 『당을 바꾸려면 지도부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거를

미하는 남조선 행인 만행을 규탄

남조선의 한 불교인이 최근 『한국일보』 기자와의 회견에서 현 집권자를 려대 죄악의 『대통령』으로 락인 하였다.

그는 현 집권자가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집권자가 거짓말을 밟았을 때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사과할 대신 벤튼스럽게 돌아대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퇴임하면 내곡동이 아니라 『통곡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소하였다.

본사기자

## 군국주의 세력의 부질없는 재침소동

이것은 『을사5조약』이 철두철미 그 어떤 법적 타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법적인 『조약』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역사에 류례 없는 날조된 『조약』에 의해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민들은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망국노의 운명을 들여 쓰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한세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고통에 대해 성실히 사죄하지 못하는 일본이 『을사5조약』과 『을사5조약』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보려

고 발악하였다. 아무리 세계를 둘러보아도 일제와 같은 이런 악만적이며 악독한 침략자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의 악랄한 정치적 폭압과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는 40여년간이나 국도의 정치적 무권리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한세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고통에 대해 성실히 사죄하지 못하는 일본이 『을사5조약』과 『을사5조약』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보려

신, 변화하는 본래 폭적보다는 광천권에만 철인이 데 있는 것 같다.』고 친리계의 친장을 거부해나섰다. 그러면 그들은 『당지도부교체』는 물론 총선과 광천권에서 『당지도부교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뚜ば로 보고 거기에 당쇄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는 물론 공천의 잘못에 대한 철저

신, 변화하는 본래 폭적보다는 광천권에만 철인이 데 있는 것 같다.』고 친리계의 친장을 거부해나섰다. 그러면 그들은 『당지도부교체』는 물론 총선과 광천권에서 『당지도부교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뚜바로 보고 거기에 당쇄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는 물론 공천의 잘못에 대한 철저

하였다.

지금 『한나라당』이 벌리고 있는 『쇄신론』은 결코 예외로 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심은 일자리 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특히 생존권을 위협하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반대를 강하게 요구해나서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여기에는 귀를 막고 뒤골방에 앉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래년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더 많은 리익을 얻으려고 다름질만 일삼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체와의 리익에만 눈이 어두워 서로 물고 들어지며 싸움질만 하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쇄신론』을 떠들어도 곧이들 사람들은 없다.

리금평

## 《쇄신론》을 둘러싼 싸움판

한 자기반성과 회생, 당지도부와 대표로부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약속과 실천이 없는 구상』이라며 지도부교체를 계속 주장해나섰다.

친리계의 주장에 지도부를

장악한 세력들은 『지도부

를 교체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며 『최근 일부의 원내부인 참여, 국민참



## 두 단 오 레 공 장 을 찾 아 서

전  
변  
의  
새  
모  
습

수수나 보리, 조를 심었었습니다.»

두단오리공장의 박성근  
지배인은 두  
단섬의 페눈  
물나는 어제  
날에 대하여  
찾아오는 사  
람들에게 이  
렇게 말해준  
한다.

외래침략자  
들에게 란도  
질당하여 쑥  
대만이 무성  
하던 두단섬  
에는 해방후  
절세위인들에  
의하여 인민  
사랑의 새 력



## 대 학 생 가 정 의 자 랑

우리는 얼마전 리오성 종  
양은행 황해남도 송화지점  
지배인의 가정을 찾았다. 퇴  
근하여 집에 들어와있던 리  
오성지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산뜻하게 도배를  
한 전실에는 아들딸들과 귀  
여운 순자, 손녀들의 재롱스  
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액틀  
이 걸려있었다. 그것을 보느  
라니 무척 행복한 가정이라  
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  
하며 리오성지배인이 한바탕  
자식자랑을 하는것이었다.

«오늘 평양 컴퓨터기술대  
학에 다니는 둘째아들녀석  
한테서 편지와 사진이 있는  
데 글쎄 그애가 전국인터넷  
프로그램개발경연에서 1등  
을 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 편지와 함께 사진  
을 옆집사람한테 자랑했는데  
글쎄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나  
모두들 제일처럼 기뻐했  
답니다.»

나이는 어려도 과학기술로  
조국을 빛내이겠다는 마음



어린이들을 무료로 보육교양  
하고있다.

탁아소들마다에는 어린이  
보육교양에 필요한 여러가지  
방들과 놀이터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전문  
적으로 알아보는 의료기구를  
비롯한 시설들이 그흔히 갖

예로부터 어린이는 즐거움  
의 샘, 꽃망울이라 했다. 이  
는 곧 어린이들의 밝은 모  
습, 행복한 모습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땅  
에 세워진 보육교양제도는  
꽃망울들이 아름답게 피어  
나도록 가꾸어주는 원  
예사도 같다.

공화국에서는 어린  
이들을 나라의 왕으  
로 내세우고 모든 어린이들  
을 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으  
로 키우고 있다.

국가의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 운동에 의하여 도  
시와 농촌을 비롯한 온 나라  
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  
들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들이 정연하게 세워져 있다.

나라에서는 너상들이 산전  
신후휴가를 마치고 사회생활  
에 참가할 때부터 첫먹이에  
어린이들을 탁아소에 받아들여

는 제목으로 된 기사에서는

사가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전화의 재미를 헤치던 어  
려운 나날에 솟아난 공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두단  
오리공장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  
난 직후인 1954년  
에 세워져 수십년  
간 맛좋은 오리고  
기를 전문으로 생  
산해온 두단오리공  
장은 오늘 현대적  
인 대규모오리고기  
생하기지로 전변되

었다.

«원래 우리 두

단섬은 물이었던 것

이 해방전 일체가

이곳에 군수산업

시설을 배치할 목

적으로 물길을 파

고 인위적으로 물

과 차단시킴으로써

섬으로 되었습니다.

해방전에는 주

로 수수나 보리, 조를 심었

었습니다.»

두단오리공장의 박성근  
지배인은 두  
단섬의 페눈  
물나는 어제  
날에 대하여  
찾아오는 사  
람들에게 이  
렇게 말해준  
한다.

외래침략자  
들에게 란도  
질당하여 쑥  
대만이 무성  
하던 두단섬  
에는 해방후  
절세위인들에  
의하여 인민  
사랑의 새 력

다.

두단오리공장은 모든 생 산  
공정들이 현대 과학기술에 기  
초하여 자동화, 컴퓨터화되  
여 있고 넓은 수천의 맛좋고  
영양가 높은 오리고기를 생산  
할 수 있는 대 규모 오리고기 생  
산 기지이다.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  
들이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  
컴퓨터화되어 있다.

나노기술을 받아들인 자  
동화된 알개우기실에 들리면  
로동자들이 한 대의 컴퓨터  
로 오리들에게 발효먹이를 주고  
세설물을 처리하는 것을 자동화함으로써 한명  
의 사양공이 수천마리의 오  
리들을 컴퓨터 한 대로 관리  
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 사람이 수동

적으로 하던 모든 공정들을

자동화하는데 이

제는 컴퓨터로 자동설정, 자  
동조종으로써 알개우기 실에  
놓았다고 한다.

먹이 분석 및 과학적인 먹

이 현대화하여 실리 있는 공  
장으로 만들 때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  
침을 주시고 생 산 능력 확  
장과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  
지 공장을 개선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

다. 그 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두단오리공장은 현대

적인 설비를 갖춘 멋진 이 공

장, 실리 있는 공장으로 개  
선 현대화될 수 있다고 지

내인은 결정에 넘쳐 말하

였다.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의 새

모습은 절세 위인들의 송고

한 이민위천의 사랑과 헌

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

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는

절세 위인들의 대해 같은 사

랑과 은정을 두단섬은 길이

전해 갈 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이제는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

은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리

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의 수동

적으로 하던 모든 공정들을

자동화하는데 이

제는 컴퓨터로 자동설정, 자  
동조종으로써 알개우기 실에  
놓았다고 한다.

먹이 분석 및 과학적인 먹

이 현대화하여 실리 있는 공

장으로 만들 때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

침을 주시고 생 산 능력 확

장과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

지 공장을 개선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

다. 그 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두단오리공장은 현대

적인 설비를 갖춘 멋진 이 공

장, 실리 있는 공장으로 개  
선 현대화될 수 있다고 지

내인은 결정에 넘쳐 말하

였다.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의 새

모습은 절세 위인들의 송고

한 이민위천의 사랑과 헌

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

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는

절세 위인들의 대해 같은 사

랑과 은정을 두단섬은 길이

전해 갈 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이제는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

은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리

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의 수동

적으로 하던 모든 공정들을

자동화하는데 이

제는 컴퓨터로 자동설정, 자  
동조종으로써 알개우기 실에  
놓았다고 한다.

먹이 분석 및 과학적인 먹

이 현대화하여 실리 있는 공

장으로 만들 때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

침을 주시고 생 산 능력 확

장과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

지 공장을 개선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

다. 그 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두단오리공장은 현대

적인 설비를 갖춘 멋진 이 공

장, 실리 있는 공장으로 개  
선 현대화될 수 있다고 지

내인은 결정에 넘쳐 말하

였다.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의 새

모습은 절세 위인들의 송고

한 이민위천의 사랑과 헌

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

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는

절세 위인들의 대해 같은 사

랑과 은정을 두단섬은 길이

전해 갈 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이제는 대 규모 오리 생산

기지로 전변된 두단오리공장

은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리

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의 수동

적으로 하던 모든 공정들을

자동화하는데 이

제는 컴퓨터로 자동설정, 자  
동조종으로써 알개우기 실에  
놓았다고 한다.

먹이 분석 및 과학적인 먹

이 현대화하여 실리 있는 공

장으로 만들 때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

침을 주시고 생 산 능력 확



얼마전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3대 혁명 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 대학생들과 컴퓨터수재 양성기지의 중학생들이 개발한 1,500여 건의 우수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조작체계 및 보안, 인공지능 및 화상처리 등 1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경공업과 농업,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 운수를 비롯한 경제의 여러 부문들의 발전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가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관심과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과학기술

### 제2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진행

앞장에서 내달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여 생산의 정보화수준을 높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 컴퓨터바둑경기대회들에서 여러 차례 페권을 쥐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바둑프로그램인 『류경바둑』과 우리 민족의 전통의 학인 고려의학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다채프로그램 『침구학백과』, 『동의보감』 약물열람프로그램들도 참관자들 속에서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는 경제 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프로그램들은 현실에 도입되어 나라의 정보과학기술발전과 생산공정의 자동화, CNC화에 적극 이바지하게 됩니다.』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11월이다. 흔히 가을은 립추부터 립동전날까지라지만 월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가을빛이 완연하다. 파아랗게 열린 하늘아래 무성함을 떨치던 나무잎들이 빨갛고 노란색으로 예쁘게 단장했다. 산과 들을 온통 울긋불긋 화려하게 물들이고 소슬비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는 단풍잎들은 그 무엇을 속삭이는 것 같다.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된 조국산천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며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단풍! 창조와 혁신의 열풍 속에 일떠선 삶의 보금자리마다에서 행복을 누릴 이 나라 인민의 환희의 순간을 예고하는 것인가.

인민의 리상 현실로 펼쳐질 2012년 봄을 마중가는 이해의 단풍이 어여서인지 류달리 이름답게 안겨온다.

축복의 꽃다발, 꽃보라처럼.

본사기자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실험실습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었다.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모습의 일상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